

세계 문자상으로 본 한글의 특이성

레프 콘체비치

1. 머리말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고유 문자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세계 문자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훈민정음”이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그 하나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서 현재 한글을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고유 문자의 음가와 제자의 원리, 예의 등이 들어 있는 책의 이름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 “훈민정음”을 똑똑히 번역하면 ‘訓民’+‘正音’-‘바른 소리 (正音)’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훈서’ 칙령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많은 준비와 연구 사업을 통하여 만들었다. 고유 문자의 창제자들은 한국 중세어 어음 체계에 대한 연구와 다른 나라의 문자(이웃 나라-몽골문자, 여진문자, 일본 음절문자 등과 멀리는 인도 문자-벵자, 티베트 문자)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는 “주역”과 송나라의 성리학 적 학설에 기초하여 중국어 성운학에 대한 탐구를 많이 진행했다. 그들은 이러한 바탕 밑에서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에 맞고 한자음을 규범화한 새로운 문자를 양력 1444년 1월에 창제했다. 그 다음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밝히고 문자 사용의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사업은 144년 2월 집현전 안에 설치된 언문청에서 8명의 우수한 학자 집단(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등)에 의해 진행됐다. 그들은 2월부터 “훈민정음 해례”의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그것을 1446년 10월에 완성했다.

2. 자모의 음가와 제자의 원리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28자에 대한 자모 음가를 한자의 음과의 대비 속에 규정했다. 예를 들어, “ㄱ”은 牙音(어금닛소리)이다. “君”(군) 자의 初聲 (처음에 나는 소리)과 같다. “-”는 君(군) 자의 中聲(가운데에서 나는 소리)과 같다. 여기서 자음의 음가를 알려주기 위해 쓴 한자는 다시 모음의 음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썼다.

“훈민정음”은 그 어느 세계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원리에 기초하여 창제되고 있다.

2.1. 한글 자음 글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문자들은 거의 다 '표의문자(그림문자)'로부터 발생 발전하여 온 문자들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제작자들은 중국 중세 성운학의 어음 분류에 따라 한국어의 어음을 발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혀와 입술, 이, 목구멍의 모양과 그 변화 형태를 조건적-형상적으로 본떠서 기본 문자를 만들었다. 자음 음을 표기하는 기본문자 5자 (ㄱ, ㄴ, ㄷ, ㅅ, ㅇ)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다른 자음 문자들은 이 기본문자에 토대하여 그 소리가 세기(강도)에 따라 획을 더하여 주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예: 'ㄱ → ㅋ, ㄴ → ㄸ, ㅅ → ㅆ, ㅇ → ㆁ'. 아마도 된소리를 표시하기 위해 6자는 겹쳐 쓰는 방법을 이용했다. 예: 'ㄱ, ㄸ, ㅆ, ㅆ, ㅆ, ㆁ'.

모음의 기본문자 3자(·, ㅡ, ㅣ)는 자음 기본문자와는 달리 삼재설을 이용한 기초 위에서 발명됐다. 곧 '·'의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天)을 본떴으며 혀를 안으로 오므리어 가장 낮고 짧게 한 모양을 본떴다. 'ㅡ'의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地)을 본떴으며 혀를 평평하게 한 모양을 본떴다. 'ㅣ'의 모양이 선 것은 사람(人)을 본떴으며 혀를 앞으로 높이 쳐든 모양을 본떴다.

다른 모음 문자들은 이 기본 문자에 토대 하여 그것들의 이러 저러한 결합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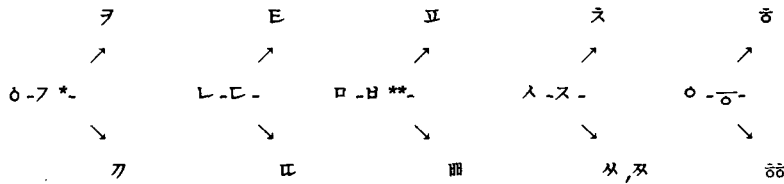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원리와 방법에 기초한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하여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우며 매우 유리하다.

2.2.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가 한국어 어음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은 한국어 어음의 특성에 맞게 문자 모양 만들기의 수법을 의식적으로 이용한 문장이다.

자음 문자는 주로 획 더하기와 문자 겹치기의 수법을 이용했다. 예를 들어서, 'ㅋ'은 'ㄱ'에 비하여 소리가 세기 때문에 획을 하나 더했다. 그리고 'ㄱ'문자를 두 번 겹쳐 써서 된소리를 나타내었다.

이리하여 자음 문자의 모양은 한국어 자음의 물리-음성학적 특성과 3개 음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ㅇ'과 'ㄱ'의 모양이 서로 다르지 않았지만 음성학적으로 맞은 열을 형성하였다.

**'ㅁ-ㄷ-ㅆ'는 실지 획 더하기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문자의 모양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

여기서 'ㅇ', 'ㄴ'과 'ㄷ'의 모양이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 아니므로 그 모양이 다른 문자와 대비하여 볼 때 다른 것만은 사실이다.

모음 문자에서는 여러 가지의 문자 모양 만들기의 수법이 이용되고 있다. 즉:

ㄱ) 두 문자 합침	ㄴ) 뒤집기	ㄷ) 거울에 비침	ㄹ) 획(점)더하기
ㅏ-‘·’+‘ㅡ’	ㅑ-ㅓ	ㅓ-ㅕ	ㅑ-ㅓ
ㅓ-‘·’+‘ㅣ’	ㅕ-ㅗ	ㅕ-ㅋ	ㅓ-ㅗ
ㅓ-‘ㅡ’+‘·’			ㅓ-ㅕ
ㅓ-‘ㅣ’+‘·’			ㅓ-ㅋ

이러한 수법에 의해 만들어진 문자 모양은 한국어 모음 어음의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한국어 모음에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단모음과 중모음 그리고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구별되고 있다.

ㄴ)과 ㄷ) 수법을 이용하여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칭이 문자 모양에 반영되도록 했다.

	ㄴ)수법	ㄷ)수법
양성 모음 -	ㅏ ㅓ	ㅓ ㅕ
음성 모음 -	ㅓ ㅗ	ㅕ ㅋ

ㄹ) 수법을 이용하여 단모음과 중모음의 대칭이 문자 모양에 반영되도록 했다.

단모음 -	ㅏ	ㅓ	ㅓ	ㅕ
중모음 -	ㅓ	ㅕ	ㅗ	ㅋ

ㄱ)과 ㄹ) 수법을 결합하여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의 대칭이 문자 모양에 반영되도록 했다.

원순 모음 -	‘·’+‘ㅡ’ = ㅏ, ‘ㅡ’+‘·’ = ㅓ, ‘ㅣ’[=‘·’]+‘ㅏ’ = ㅓ, ‘ㅣ’[=‘·’]+‘ㅓ’ = ㅗ
평순 모음 -	‘ㅣ’+‘·’ = ㅓ, ‘·’+‘ㅣ’ = ㅕ, ‘ㅣ’[=‘·’]+‘ㅓ’ = ㅕ, ‘ㅣ’[=‘·’]+‘ㅕ’ = ㅋ

2.3. “훈민정음”은 그 문자 모양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져 있다.

이리하여 많은 세계 문자와 달리 거의 모든 한글 문자는 생성력이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훈민정음”은 초성자(자음 문자)에서는 기본자 5자를 먼저 조음 기관의 상형 원리에 의해 조건적으로 만들고 다른 문자들은 그에 기초하여 소리의 강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다. 한 기본 문자 모양(1차로 얻게 된다)에 획(점)을 더하면(加一劃) 파생 기본 문자의 제2열(2차)을 만들거나 또 획(점)을 더하면(加二劃) 이 새로운 파생 글자 모양(3차적으로 이루어진 문자)이 거센소리를 반영하며 혹은 이 같은 문자를 두 번 겹쳐 써서(各字並書) 그런

문자 모양(5차)은 15세기 중엽에는 아직 확고한 음운으로까지 되지 못하고 있던 전탁음(아마 된소리)을 나타내었다. 제2열의 파생 기본 문자에 속하지만 3개 문자('ㅇ, ㄹ, ㅁ')는 원래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 아니므로 다른 문자와 대비하여 볼 때 기본 문자 모양의 특수한 변화(異體)에 의해서 4차적인 파생 문자 모양을 창제하였다. 그 외에는 언해본에서만 중국어의 齒頭音과 整齒音을 표기하기 위해 처음의 문자 'ㅅ, ㅆ, ㅈ'를 일부 변화시킨 형태(6차)를 만들었다. 곧 치두음을 나타내기 위해 처음의 문자의 왼쪽 사선획을 길게 한 'ㅅ, ㅆ, ㅈ, ㅆ, ㅆ' 문자 형태를 만들었으며 정치음을 나타내기 위해 처음의 문자의 오른쪽 사선획을 길게 한 'ㅅ, ㅆ, ㅈ, ㅆ, ㅆ' 문자 형태를 만들었다. 마침내 입술소리를 표기한 문자들 밑에 'ㅇ'글자를 이어 쓰면(連書) 소위 '脣輕音'을 나타낸 문자 모양 (7차)을 만들었다. 이 문자 모양 중에서 1차-4차로 얻게 되는 자음 문자들 (17자)은 “훈민정음”의 28자모에 속하였다.

기본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ㄱ	-	ㅋ	ㅇ	ㄲ	-	-
ㄴ	ㄷ	ㄸ	ㄹ	ㄺ, (ㄺ)	-	-
ㄹ	ㅁ	ㅂ	-	ㅃ	-	ㅃ, ㅃ, (ㅃ), (ㅃ)
ㅅ	ㅆ	ㅈ	ㅊ	ㅅ	ㅅ, ㅆ, ㅈ, ㅆ, ㅆ	-
					ㅅ, ㅆ, ㅈ, ㅆ, ㅆ	
ㅇ	ㅇ	ㅎ	-	ㅇ, (ㅇ)	-	-

“훈민정음” 창제시기에 어떤 초성자(자음 문자)들은 어두나 어말에서 두세 자를 서로 결합할 수 있었다(二字三字合用並書). 곧 어두에는

'ㄱ + ㅅ = ㅅ'; 'ㅁ + ㄱ, ㄷ, ㅅ, ㅆ, (ㅈ) = ㅃ, ㅃ, ㅃ, ㅃ, (ㅃ)'; 'ㅅ + ㄱ, (ㄴ), ㄷ, (ㅁ), ㅁ, ㅆ, (ㅈ) =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ㅃ + ㄱ, ㄱ = ㅃ, ㅃ'; '(ㅈ + ㄱ) = (ㅊ)'; 어말에는 - 'ㄱ + ㅅ = ㅅ', 'ㄴ + ㅆ = ㅅ, ㅅ'; 'ㄹ + ㄱ, ㅁ, ㅁ, ㅅ, ㅈ, ㅆ, ㅈ, ㅆ, ㅆ, ㅆ =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ㅁ + ㄱ = ㅃ)'; 'ㅁ + ㄱ, ㅅ = ㅃ, ㅃ'.

중성자(모음 문자)도 역시 기본자 "의 3자를 먼저 만들고 다른 문자들은 그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생성되고 있었다. 기본자와 2차적으로 만들어진 기본자는 단모음을 표기하고 3차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중모음(반모음 'ㅣ'를 앞 요소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본자	2차적으로 만들어진 자모 문자	3차적으로 만들어진 자모 문자
·	· + ㅡ = ㅜ	ㅣ (= '·') + ㅜ = ㅠ
ㅡ	ㅡ + · = ㅓ	ㅣ (= '·') + ㅓ = ㅕ
ㅣ	ㅣ + · = ㅑ, · + ㅣ = ㅓ	ㅣ (= '·') + ㅑ = ㅓ, ㅣ (= '·') + ㅓ = ㅕ.

이 모음 문자들(11자)도 “훈민정음”의 28자모에 속하였다. 이 외에도 모음 문자들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여러 가지의 수법으로 결합할 수 있었으며 이중모음을 반영한 합자를 만들 수 있었다. 모음자의 결합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즉:

1) 二字合用

(ㄱ) 기본 문자 ‘·’와 ‘ㅡ’로부터 발생한 2차적인 파생 문자의 결합에 따라서 (同出): · (ㄱ+ ㅣ=ㅅ), ㅅ (ㄷ+ ㅣ=ㅌ);

(ㄴ) ‘ㅣ’로부터 3차적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문자의 결합에 따라서(又同出): ㅣ(ㅅ+ ㅣ=ㅆ, ㅌ+ ㅣ=ㅍ);

2) 中聲之與 ㅣ 相合合用

(ㄱ) 기본 문자(‘ㅣ’를 제외하고)의 단순 결합, 또한 2차적 기본 문자 혹은 ‘ㅣ’와의 3차적 파생 문자들의 단순 결합(一字):

- + ㅣ = ·ㅣ, ㅡ + ㅣ = ㅡㅣ;
- ㄱ + ㅣ = ㅅ, ㅌ + ㅣ = ㅆ, ㄷ + ㅣ = ㅌ, ㅊ + ㅣ = ㅊ;
- ㅅ + ㅣ = ㅆ, ㅆ + ㅣ = ㅉ, ㅌ + ㅣ = ㅍ, ㅊ + ㅣ = ㅑ;

(ㄴ) ‘ㅣ’와의 모음 문자를 위한 두 파생 문자의 복합 결합(二字):

- ㅅ + ㅣ = ㅆ, ㅆ + ㅣ = ㅉ;
- ㅆ + ㅣ = ㅉ, ㅉ + ㅣ = ㅊ.

이것 외에도 음운 변화에 따라 혹은 외국어의 특별한 어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독자적인 문자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ㄴ, ㄷ, ㄹ’ 등 기타 모양의 문자들을 새로 만들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문자 생활에서는 광범하게 쓰이지 않았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모 28자로부터 역대로 없어진 음운을 표기하던 4자(‘·, ㅅ, ㅌ, ㅆ’)가 없애 버리고 새로 생겨나는 음운을 표기하는 16자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문자 모양을 잡아서 40자를 포함하는 현대 북한 자모와 남한 소위 ‘사전 자모’에 새롭게 보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된소리를 나타내는 자음 문자 ‘ㄱ, ㄷ, ㄹ, ㅅ, ㅌ, ㅆ’는 순한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ㄱ, ㄷ, ㅅ, ㅌ, ㅆ’를 겹쳐 쓴 문자들이며 모음 문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그리고 ‘ㅐ, ㅒ’는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들이다.

3. 한글 문자의 특성

한글은 1) 문자 유형상, 2) 문자 계통상, 3) 문자 모양상, 그리고 4) 문자의 역대 변화 발전 상에서 다른 문자와는 구별되는 일련의 공통성 및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3.1. 문자 유형상 독특한 특성

세계의 여러 문자들은 ‘표의 문자’, ‘음절 문자’ 및 ‘표음 문자’ 이다. 물론 이것들이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문자들이 한 문자 체계 안에서 일정하게 겹치는 것도 있지만 유형상으로는 이 3가지 중 그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 어떤 문자를 그 어떤 유형에 소속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표징은 그 문자가 언어의 어떠한 요소를 표기하는가 하는 것이다. 단어나 형태부를 표기하는 문자는 표의 문자이며 음절을 표기하는 문자는 음절문자이며 어음을 표기하는 문자를 표음문자이다.

“훈민정음”은 언어 어음의 가장 작은 단위인 어음(말소리)을 표기하는 문자로 창제하였다. “훈민정음”은 초성(자음)을 표기하는 문자 17자와 중성(모음)을 표기하는 11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문자는 유형상 의미에서 자모음문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모음문자는 라틴 문자나 시릴 문자와 같은 자모와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 라틴 문자나 시릴 문자는 옆으로 한 줄로 나란히 배열되어 단어와 문법 요소를 표기하며 자모음문자 그대로 가능하게 되고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이러한 알파벳과 달리 자모음문자의 몇 개 결합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면적으로 중국의 상형 문자-한자 모양을 모형으로 취하는 사각형(네모꼴) 글자이다. 초성, 중성, 종성의 3성이 합해진 사각형 글자는 음절을 표기하였다. 그러므로 한글이 음절 문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2중적인 성격을 가진 문자이다. 그런데 2차적으로 만들어진 이 음절 문자는 일본 ‘가나’ 문자와 같은 순수한 음절 문자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가나’와 달리 “훈민정음”의 음절 문자는 음절 문자를 구성하는 몇 개의 자모음문자로 분해될 수 있다. 이리하여 한글 문자는 자모음-음절 문자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3.2. 문자 모양의 특성

“훈민정음”은 그 문자 모양에 있어서도 세계의 다른 문자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ㄱ) 무엇보다도 한글의 문자의 요소들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한데 이것들은 점(짧은 획), 선(직각선, 지형선, 곡선), 사각형, 원형과 그것들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ㄴ) 자음 문자와 모음 문자가 그 모양에서 엄격히 구별된다. 자음 문자 모양은 직각형, 사각형, 두 사선이 한 점에서 모인 형, 원형 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으나 모음 문자 모양은 다 직각선이나 지평선과 점(“훈민정음” 창제 이후 곧 점이 짧은 직선획으로 변화되었다)의 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자음 문자와 모음 문자의 모양을 비교하면 도해의 기초 요소와 그 제작 방법이 서로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설명 없이 쉽게 알 수 있다.

자음 문자의 모양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ㅅ ㅆ ㅈ ㅊ ㅍ ㅎ ㅇ ㄹ ㅁ

모음 문자의 모양

ㄷ) 또한 한글에 자음 문자와 모음 문자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은 사각형 글자에서 삼성 문자 즉: 중성자(모음 문자)는 언제나 음절 중간 위치에, 초성자(자음 문자)와 종성자(초성을 반복하는 자음 문자)는 음절 초 위치와 음절 말 위치에 쓰려고 만든 것과는 관련된다.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문자 28자를 라틴 문자나 시릴 문자와 같이 옆으로 나란히 잇달아 쓰는 것이 아니라 음절의 일정한 위치에 따라 초성, 중성, 종성이 묶여서 하나의 음절 문자를 2차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모음 문자는 중성 위치에 쓰인데 맞게 그 모양을 만들게 됨으로써 심지어 한 모음으로 구성된 음절이 모음 문자 앞에 무성 자음 ‘ㅇ’을 꼭 써야 하

였다. (예:‘아, 오, 이, 어’ 등). 이상과 같은 구별은 한국어 표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한국어에서 모음이 노는 주요한 역할과 관련된다. 한국어에서 모음은 음절의 핵심을 이루면서 기초 단위에서 기둥의 역할을 논다. 모음은 홀로 음절을 이룰 수도 있다. 자음 문자(초성과 종성)는 모음 문자를 둘러싸면서 음절의 모양을 짓는다.

ㄹ) 한글의 문자 모양의 특성은 또한 그 모양 체계가 한국어 어음 체계에 맞게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글 자모는 한국어 음운 체계를 잘 표시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모의 음가와 제자 원리”를 역시 참조.)

“훈민정음” 창제 시기의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 자음 체계는 한글 문자 구조와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도표 1 참조)

15세기의 한국어 모음 체계와 현대 표준어 모음 체계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이 대립/상호 관계가 있음을 문자 모양에서도 알 수 있다.(도표 2-3 참조).

자모 문자에서 7개 단모음 문자 외에 이중모음 단자도 포함되었다. 즉 ‘ㄱ, ㅋ, ㆁ, ㆁ’ 문자 ‘ㄱ, ㅋ, ㆁ, ㆁ’는 초생(初生)적인 것이며 ‘ㄱ, ㅋ, ㆁ, ㆁ’는 재생(再生)적인 것이라 고했다. 모음 조화법칙에 따라 11모음 단자 중에서 8자는 양성 문자와 음성 문자의 정리 대우에 있으면서 배열되었다.(“자모의 음가오 제자의 원리” 2) 참조).

<도표 1>

장애	위치	양순성		전혈성				후설성	후두성			
		舌音	舌傳音	舌音	半舌音	齒音		半齒音	牙音	喉音		
	성격 방식	지정성 (파열성)	마찰성	지정성 (파열성)	설측성 (탄설성)	파찰성	마찰성	마찰성	지정성 (파열성)	마찰성	폐쇄성	열림
장애성	연성 全清	ㅍ p		ㄷ t		ㅌ t̚ [t̚] **	ㅍ s		ㅋ k			
	경성 全濁	ㅍ' p'		ㄷ' t'		ㅌ' t̚' [t̚'] **	ㅍ' s'		ㅋ' k'	[h̥] [ʔ]*	[h̥] [ʔ]*	[oɰ] [oɰ]*
	기성 次清	ㅍ ⁿ p ⁿ		ㄷ ⁿ t ⁿ		ㅌ ⁿ t̚ ⁿ [t̚ ⁿ] **			ㅋ ⁿ k ⁿ			
향성	비성 不清	ㅁ m		ㄴ n [ɰ nn]*					ㅇ ***			
	유성 不濁		[β β]*		ㄹ l/r [r]**			[Δz]*				[o] ***

(※도표에서 한자로 쓰인 술어는 “훈민정음 해례”에 의한 옛 호칭이다. 괄호 없는 자음 문자 표기와 음가는 현대 표준어의 문자 체계와 음운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괄호에 넣은 소실문자 𐄂, 𐄃, 𐄄, 𐄅 및 문자 결합 𐄆, 𐄇, 𐄈의 음가는 이승녕 교수와 허 응 교수의 재구에 의해서 표기한다(이승녕, 중세국어문법, 서울:을유 문화사, 1988년; 허 응,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서울:샘 문화사, 1989년). ‘𐄂’ 음은 不淸不濁 가운데서 조건적으로 놓여 있다. [𐄃]은 후두 폐쇄음을 표시하는 일종의 부호이었던 것이다. ‘𐄄’은 순한 한국어 어휘에 후두를 폐쇄한 사잇소리로 쓰이었거나 한자음 표기에도 초성으로서 ‘ㅇ’과 통용할 수 있고 입성 종성 ‘ㄹ’을 촉급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사용됨으로써 실제음과 너무 달랐다. ‘𐄅’은 된소리 적는 방법에 따라 반모음 [i],[u]의 긴장(tense)임만 표기했다고 생각된다.

**괄호에 넣은 전설 파찰음 ‘ㅈ, ㅊ, ㅉ’은 15세기 중엽에 아직 연구개음화된 변이음을 가지지 않은 치조음(齒槽音) [tʃ],[tʃʰ],[tʃʰ]을 반영하였으리라 추정된다.

***‘ㅇ’은 아음이라 하였으니 “훈민정음” 창제 이후 초성으로 쓰였든지 종성으로 쓰였든지, 반드시 [ŋ] 음가를 가지는 것이었다. ‘ㅇ’ 음가가 전혀 없는 zero 소리이었다. 운학 학자들은 “<字音(한자의 소리를 표시한)> 글자에 있어서도 첫소리나 종소리 자리에 어떠한 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이 소리를 ‘ㅇ’ 로 적었던 것인데, 그 이유는 초·중·종 세 소리를 갖춘 한자음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이었다고 생각된다.”(허 응 저, 동서, 373쪽).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문자 ‘ㅇ’은 음절 초에 무성음으로서 모음 문자 앞에 놓이며 음절 말에 비음 [ŋ]을 표기한다.

<도표 2>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단모음 체계

口(입술모양)		中位	張	蹙	
舌 (혀의 사태?)	聲	(평순)	(평순)	(평순)	원순
不縮	淺	li			
小縮	不深不淺		lə	—i	ɾu
縮	深		la	· ʌ	ɾo

모두 다른 모음 문자의 결합은 합용자로서 이중모음이나 삼중모음을 표기했다. 이중모음에 있어서는 평순 과도음(glide)을 표시하는 반모음[i]와 원순 과도음을 표시하는 반모음[u]는 각각 [j],[w]로 표기된다. 긴장 [반]모음의 ‘oo’[j]는 음성 체계에서 잘 정하지 않고 특별한 음운이 아니었다. 아마도 이 반모음은 이중/삼중모음에만 선행하였으며 보통 반모음 [j]와 일치하였다. [w]반모음은 [a],[ə]에만 선행하였고, [j]반모음은 [a],[ə]와 [u],[o]에 선행할 수 있었다. 이 이중모음들은 모두 상승적인 것이다. 다른 여섯 단모음에 반모음 [j]가 하속하여 하강적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승적 이중모음에 다시 [j]가 후행하여 삼중모음이 되었다. ‘ㅈ, ㅉ, ㅊ, ㅊ’와 같은 삼중모음들은 가정적으로만 존재하였다.

상승적 이중/삼중모음

(7) 再出字(單字) (4+[4]) - l+ l,ɾ, l,ɾ...

l jə ɾ ju
 l ja ɾ jo
 [ㅈ jə ㅉ ju

- ∞ ㅈ j'a ㅉ j'oi
- (ㄴ) 二字 同出 合用字 (4) - ㄴ/ㄷ (ㄴ/ㄷ) + ㅈ(ㅈ), ㅉ(ㅉ)...
- 나 wa[ŏa] ㄴ na[wŏa]
- ㅈ joja ㅉ juje
- (ㄷ) 三字 相合 合用字 (4) - ㄴ/ㄷ (ㄴ/ㄷ) + ㅈ/ㅉ (ㅈ/ㅉ)+ ㅊ...
- 내 maj[ŏac] ㄴ na[wŏaj]
- (삼중모음) ㅈ jojaj ㅉ jujej

하승적 이중/삼중모음

- 二字 相合 合用字 (10) - ㅈ, ㅉ, ㅊ(ㅊ), ㅈ(ㅈ), ㅉ(ㅉ), ㅊ(ㅊ) + ㅊ...
- ㅈ 이 sj ㅉ 이 j ㅊ 이 aj ㅈ 이 uj ㅉ 이 ej
- (삼중모음) ㅈ 이 j ㅉ 이 j ㅊ 이 ju ㅊ 이 je

<도표 3> 현대 한국어 단모음 체계

혀의 부분		전설		중설		후설	
혀높이, 간극의 정도		입술모양					
		평순	원순	평순	평순	원순	
고설	폐음	ㅣ i	ㅈ y*	- i		ㅈ u	
중설	고중 반폐음	ㅈ e	ㅉ ø	ㅈ ə**		ㅈ o	
	저중 반개음	ㅈ ɛ			(ㅈ ʌ)**		
저설	개음			ㅈ a			

*'ㅈ' 문자로 표기된 이중모음 [wi] 와 단모음 [y]를 다같이 두어두기로 했다. [wi] 이주음 음 대신에 단모음화한 [y]를 쓰는 경향이 차츰 차츰 보편화되어 가는 듯하다.

**[ə]와 [ʌ]는 음운론적 최소 대립의 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ə]가 항상 장모음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ə]와 [ʌ]가 가정적인 두 개의 음운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이 구별을 잘 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 결국 이 두 변이음이 하나의 음운으로 묶이는 것이다. 각각 'ㅈ', 'ㅉ' 문자로 표기하지만 이중모음들 -[jʌ]는 [jə]의, [wʌ]는 [wə]의 한 음운의 결합 변이음뿐이다.

현대 표준어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모음들이 있다. 즉:

상승 이중모음

- (7) 'ㅈ'+V계 (6)-
- ㅈ ju
- ㅈ je ㅈ jə ㅈ jo
- ㅈ je ㅈ ja (ㅈ jʌ)

(ㄴ) 'w'+V계 (4)- (ㄱ wi)

네 we ㄱ wa

내 we 나 wa (ㄱ wa)

불완전한 평준 이중모음- ㄴ i.i.

이리하여 생성적 원칙은 한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원칙은 그러한 규모에 있어서 다른 세계 문자에 발견되지 못한다.

ㅂ)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중세 한국어와 중국어의 운율적 자질-소위 ‘四聲’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편리한 加點法을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각자 (서사 음절)의 왼쪽에 傍點(또는 四聲點)의 세 가지를 찍었는데 점 하나(一點) 찍힌 去聲은 높은 소리, 둘(二點) 찍힌 上聲은 높아 가는 쇠, 점 없는(無點) 은 平聲은 낮은 소리라는 것을 표시하는 듯 했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어의 사성과 한국어 소위 ‘사성’(실지 三聲)은 그 명칭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허 응 교수의 재구에 의하면 이 두 언어의 성조의 상호 대조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음		한국어음
↙ 全清, 次清	—————	去聲
平聲		
↘ 全濁, 不清不濁	—————	上聲
上聲	—————	平聲
去聲	—————	去聲

이 외에도 의 설명으로 보아, 중국어 성조나 한자음의 사성 설명과 중세 한국어의 삼성 설명이 같지 않았다.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어의 ‘ㄱ, ㄷ, ㅂ’과 같은 종성(받침)을 가진 음절음 독립한 일류의 “을 이루지 않아서 평성, 상성, 거성과 같았으며 그 가점법을 본보기로 삼았다. 이 체계는 초분절적인 성조의 표기에 다른 문자에 비하여 가장 단순한 합리적 방법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3.3. 문자 계통적 특성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의 문자만 하여도 수백 종에 달하며 유형과 그 모양이 매우 다종다양하다. 문자들은 거의 다 그 기원에 있어서 어떤 문자들과 일정한 관계를 발전하여 왔다.

기원상에 있어서의 관계는 주로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어떤 문자를 차용하여 그것이 자기 언어를 표기하는 데 알맞도록 개조 변화시킨다.(라틴 문자나 시릴 문자에 기초한 여러 문자들). 다른 하나는 그 어떤 문자에 기초하여 새롭게 만들어진다(그 기원상 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일본 ‘가나’).

세계 문자의 발달 계단으로 보아 한글은 상대적으로 늦게 15세기 중엽까지 보지 않은 높은 발달 계단에 속한다. 문자 계통상으로 한글은 그 어느 문자와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은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한 후에 명백하여졌다. 이 때부터 여러 가지의 기원 가설(古篆 모방설, 고대 인도 범자 모방설과 팔리 모방설, 몽골 팔사파 모방설, 티베트

으나 문자는 20세기 30년대까지 계속하여 이용했다. 현대 알파벳의 문자수는 남한과 북한에 다르다. 남한에서는 “한글맞춤법”(1988년)에 의해서 한글 자모의 수가 24자(14 자음 문자와 11 모음 문자)로 하며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가 40자(19자음 문자와 21모음 문자)로 규정된다. 북한에서는 “조선어 철자법”(1954년)과 “조선말 규범집”(1966년)에 의해서 자모는 남한 사전 자모와 동일하게 한 40자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대 알파벳의 40자 중에는 “훈민정음”과 비교해서 새로 생겨난 문자가 전혀 없다. 그것은 “훈민정음”에 생성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자음 문자 결합(병서: ㄱ, ㅌ, ㅍ, ㅊ, ㅌ)과 모음 문자 결합(발전 과정에 단모음화한 ‘ㅐ, ㅑ, ㅕ’)와 이중 모음으로 남아 있는 ‘ㅒ, ㅓ, ㅖ, ㅗ, ㅛ, ㅜ, ㅠ’)으로만 확장된 것이다.

3.4.3. 문자 차례의 변천

“훈민정음”에는 자음 문자와 모음 문자를 엄격히 구별하여 자음 문자를 먼저 다 배열하고 그 다음 모음 문자를 배열했다.

자음(초성)문자의 차례는 조음 위치에 따라 五音(七音)-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의 순서로 정해지고 그리고 각 열의 매 자음을 발성의 세기와 조음의 일정한 긴장을 고려한 조음 방법에 따라 淸濁-全淸(평음, 순한 소리), 全濁(경음, 된소리), 次淸(유기음, 거센소리), 不聽不濁(유성음, 가장 약한 소리)으로 분류하는 데 있었다. 그 자모의 배열 순서를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다.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ㅃ, ㅅ ㅆ ㅈ, ㅇ ㆏ ㆑, ㄹ ㅅ.

모음(중성) 문자는 天, 地, 人을 상형한 기본자(·, ㅡ, ㅣ)의 3자와 天에서 나온 ‘ㄴ, ㅌ’, 地에서 나온 ‘ㄱ, ㅊ’의 4 初出字에, 반모음 ‘ㅣ’[j]를 선행한 이중 모음을 표기한 再出字 ‘ㅛ, ㅜ, ㅠ, ㅡ’의 4자를 합하여 모두 11자가 되는데 그것의 배열 순서가 다음과 같다.

· ㅡ ㅣ, ㅛ ㅜ ㅠ ㅊ, ㅛ ㅜ ㅠ ㅊ.

오늘에는 한글 자모의 순서는 남한과 북한에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남한에 1948년에 공인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 —(ㄱ)와 (ㄴ); 문교부가 1988년에 고시한 “한글 맞춤법” —(ㄱ), (ㄴ), (ㄷ)

(ㄱ) 공식적 자모*

자음 문자(13):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
기역 니은 디귤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읒
 모음 문자(1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ㄴ) 보충적으로 붙인 두 개 이상의 문자 순서:

자음 문자(5): ㆁ ㆏ ㆑ ㆒ ㆓
쌍기역 쌍디귤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모음 문자(11): ㅒ ㅓ ㅖ ㅗ ㅛ ㅜ ㅠ ㅡ ㅑ ㅕ ㅖ
애 예 에 예 와 왜 의 위 웨 위 의

(ㄷ)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

자음 문자(19): ㄱ ㅋ ㆁ ㄷ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ㅎ

모음 문자(2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ㅜ ㅞ ㅟ ㅡ

북한에 1945년에 고혹원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 안에 조직된 조선 철자법 규정 작성 위원회가 작성된 “조선어 철자법”; 1966년에 내각 직속 국어 사정 위원회가 새로 채택된 “조선말 규범집”

자음(19): ㄱ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ㅎ ㄱ ㄷ ㅅ ㅆ

기음/그 니은/ㄴ 디근/드 리을/르 미음/므 비읍/브 시옷/스 이응/으 지읒/즈 치읓/츠 키읓 티읓 피읓 히읓 된기읓 된디근 된비읍 된시옷 된지읓

모음(2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ㅜ ㅞ ㅟ ㅡ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의 애 에 예 외 위 의 와 워 왜 웨

남한의 1988년 판의 초안에는 공식적 자모는 1933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의 자모와 일치하며 사전에서 사용되는 자모는 북한의 초안의 자모를 양적으로 비슷하나 문자의 순서가 다르다.

3.4.4. 한글 자모의 이름의 변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매 자모에 이름이 없었다. 1527년에 최세진이 “訓蒙 字會 凡例”에서 문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지었다. 자음 문자에서는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이는 문자 8자는 두 음절 이름 : ㄱ-기역, ㄴ-니은, ㄷ-디근,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초성에만 쓰이는 8자는 단음절 이름 : ㅋ-키, ㆁ-티, ㅈ-피, ㅊ-지, ㅊ-치, ㅅ-시, ㅇ-이, ㅎ-히; 중성(모음)은 다음과 같은 이름: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응, ㅡ-스을 붙여 주었다.

현대 자모의 이름이 남한과 북한에 약간의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다(밑줄을 친 이름을 참조). 더욱이 북한에 1987년에 자음 문자 ‘ㅇ’의 이름만을 ‘웅’으로 고쳐 부르도록 하였다.

3.4.5. 한글 글씨의 방향의 변화

문자를 쓰는 방향에 따라 문자 쓰기와 글읽기의 편의성 정도가 달라진다. 5가지 종류의 글씨의 방향 중에서 한글은 내리 글씨(縱書)와 가로 글씨(橫書)와의 성능을 갖추어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글씨와 마찬가지로 매 문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써나가며 줄의 방향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여 갔다. 그러나 오늘에서는 중국 한자와 일본 ‘가나’와 같이 한글은 가로 글씨로 거의 전부로 변화했다. 매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되 줄의 방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동하여 간다. 물론 가로 글씨에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글의 글자꼴 (특히 필기)의 다소의 변형 없이 안 되었다. 이러한 세계 공통적인 글씨의 방향의 형식에 따르면서 한글의 실지 사용에 아무런 불편도 없다. 그러므로 확실히 이 분야에서도 한글은 다른 나라 문자의 내리 글씨보다 나은 점이다.

이상에서 요약하여 진술한 바와 같이 세종대왕 말기에 선포된 “훈민정음”의 독특한 문자의 이론과 오늘 한글의 위치와 특징들은 일반 문자학과 세계 문자 상으로 본 비교 분석에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1974), 「훈민정음 역주」, 서울.
 강신항(1987), 「훈민정음 연구」, 서울, (1991;중보판)
 고영근(1985), 「훈민정음 연구」, 서울.
 고평석(1993), 「훈민정음 28자는 세종대왕의 창제」(1-5), 한글 정보 6-10호.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1954/1956), 「조선어 철자법」, 평양.
 권재선(1988), 「우리 말글 논문집」, 서울.
 권중성(1987), 「문자학 개요」, 평양.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1,4권), 서울.
 김병제(1954), 훈민정음 성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학보」 3호, 평양.
 김병제(1956), 「조선어 고유 문자 훈민정음」, 서울.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평양.
 김석득(1971), 훈민정음 해례의 언어학적 분석, 「한글 학회 50돌 기념 논문집」, 서울.
 김석득(1975/1977), 「한국어 연구사」(2권), 서울.
 김수경(1949), 훈민정음 성립 사고,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 론총」(역사 문학 연구), 평양.
 김영환(1978), 「조선 민족어 발전 역사 연구」, 평양.
 김윤경(1946), 「조선 문자 그 어학사」, 경성, (고친판, 1954/1982, 서울)
 김인호(1987),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창조된 가장 발전된 글자, 「언어학논문집」 7집, 평양.
 남광우(1982), 「국어 국자론집」, 서울.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편(1966), 「조선말 규범집」, 평양.
 러중동(1990), 세종 시대 언서 책성에 대한 연구(세종실록을 중심으로), 「배달말」 15집, 진주.
 량중률(1963), 우리의 고유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조선 어학」 4호.
 량중률·김영환 공저(1982/1987), 「“훈민정음”에 대하여」, 평양.
 류 렬(1961), 훈민정음(해례)에 대하여, 「조선 어학」 4호, 평양.
 문교부 편(1988), 「필수 자료」Ⅱ-4, 서울.
 박병채(1976), 「역해 훈민정음」, 서울.
 박종국(1976/1979), 「주해 훈민정음」, 서울.
 방중현(1946/1948), 「훈민정음 통사」, 서울.
 서병국(1977/1985), 「신강 훈민정음」, 대구(1975 서울)
 신창순(1990), 훈민정음 연구 문헌 목록, 「정신문화 연구」 13권 1호.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서울.
 유창균(1974/1977), 「훈민정음」, 서울.
 유창균(1991), 「국어학사」, 서울.
 이광호(1991), 문자 훈민정음의 논리성, 「국어의 이해와 인식」, 서울.
 이근수(1992), 「훈민정음」(국어학 연구 100년사 2권), 서울.
 이기문(1963), 민족 문자 “훈민정음” 창제의 문자사적 의의, 「조선 어학」 4호.
 이기문(1972/1988), 「국어사 개설」(개정판), 서울.
 이기문(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제2호.
 이기문(1976), 최근 훈민정음 연구에서 제기된 몇 문제, 「진단 학보」 42권.
 이기문(1987), 「국어 음운사 연구」, 서울.

- 이상백(1957/1595), 「한글의 기원」, 서울.
- 이승녕(1969/1991) 「훈민정음」(한국의 명저 제 1권), 서울.
- 이승녕(1981/1982), 「혁신 국어학사」, 서울.
- 이승녕(1988), 「국어학 선집」(음운편 1), 서울.
- 이현규(1976), 훈민정음 자소 체계의 수정, 「국어국문학 대계」 3 권, 서울.
- 이현규(1983), 훈민정음 해례의 언어학적 연구, 「한국어 계통론」(훈민정음 연구), 서울.
- 이현희(1992), 북한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 「어학 연구」(서울대) 28권 3호.
- 이현희(1990), 훈민정음,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 임용기(1991), “훈민정음”의 삼분법 형성 과정,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전몽수, 홍기문(1949), 「훈민정음 역해」, 평양.
- 전몽수(1949), 조선어문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사 계문제」 12,14호, 평양.
- 정병우(1981), 「훈민정음 연구」, 원광대학교.
- 정우상(1991), “훈민정음”의 통사구조, 「국어의 이해와 인식」, 서울.
- 제4회 한국 고전 연구 심포지움(1976),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검토, 「진단학보」 42권.
- 최현배(1942), 「한글갈(正音學)」, 경성(고친판, 1976, 서울).
- 한글과 한자(1985), 「국자론의 바른 길」, 서울.
- 한글 학회 편(1984), 「한글 맞춤법」, 서울.
- 허 응(1965), 「국어 음운학」, 서울, (증판 1973)
- 허 응(1985/1989),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서울.
- 홍기문(1946), 「정음 발달사」(2권), 서울.
- 홍기문, 김병제, 박종대 공저(1964), 「조선어사 연구」, 평양.
- 황희영(1985) 「국어 정서법」(대학 교재용), 서울.
- 管野 裕臣(1977), ハングルとその構造成立, 「月刊言語」 6巻 10號. 東京.
- 小倉進平(1965), 「朝鮮語學史(河野六郎補註版)」, 東京. (出版, 1920; 増訂版, 1940)
- 中村 完(1983), 訓民正音, 「この朝鮮史研究會論文集」 20巻. 東京.
- 中村 完(1967), 諺文文獻史における英-正時代について, 「조선 학보」(天理) 43호.
- 中村 完(1968), 訓民正音につける文化の構造と意識, 「조선 학보」 47호.
- 中村 完(1995) 訓民正音の世界, 「論文集」, 仙台市.
- 河野 六郎(1989), ハングルとその起源, 「日本學士院紀要」, 東京.
- 콘체비치 레브(1988), “훈민정음”에 대하여, 제2차 조선학 전문가 국제학술토론회 논문 개요. 평양.
- 콘체비치 레브(1993), 훈민정음의 몇 가지 문제점-러시아 한국어 학자가 본 한글, 1993년 국제 학술회의(국어학회), 서울.
- Kontsevich, L.R. (1969), The First Monument of Korean Writing, In: *Asia in Soviet Studies*. Moscow.
- Концевич, Л. Р. (1973), Вопросы текстологии первого памятника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унмин чоньм.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Kontsevich, L.R. 한국 문자의 첫째 문헌 “訓民正音”의 訓話(textology) 문제. 박사학위 논문 개요). 모스크바.
- Концевич, Л. Р. (1975), Из истор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Учений на Востоке (Попытка а интерпретации ме-та языка первого памятника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Kontsevich, L. R. 동방에 있어서의 언어학적 학설의 역사 연구(한국 문자의 첫째 문헌 <訓民正音 解例>의 metalanguage의 해석)), *Народы Азии и Африки* (아세아, 아프리카 국민들). 모스크바. N 4.
- Концевич, Л. Р. (1977), Элементарны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понятия в Хунмин чоньм (попытка интерпретации метаязыка первого памятника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Kontsevich, L. R. “訓民正音”의 언어학적 기초적인 개념(한국 문자의 첫째 문헌 「訓民正音 解例」의 metalanguage의 해석)).
- Kontsevich, L. R. (1994), General Sources of Linguistic Theory in Hunmin Chôngŭm (Summary).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Meeting Handbook ICKL '94. University of London.
- Kontsevich, L. R. (1997), Peculiarities of the Korean Alphabet in its Grammatological Aspect. 第5回 朝鮮學國際學術討論會. 大阪

- Kontsevich, L. R. (1997), “訓民正音(解例本)”은 한국 전통적인 언어학적 이론의 초석이다, 제7차 국제 학술 회의.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서울.
- Ledyard, G. (1966),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The Origine, Background, and Early History*, Ann Arbor (Michigan). London.
- Ramsey, S. R. (1992), *The Korean Alphabet*. In: *King Sejong the Great. The Light of 15th Century Korea*.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Symposium on the Korean Writing System. Paper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ICKL). The George Washinhton University. August 1992.
- Проблемы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типологии и структуры языка (“언어 유형론과 언어 구조의 문제”). 레닌그라드.
- Хунмин чоньм (“Наставление народу о правильном произношен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еревод с ханмуна, примечания и приложения Л. Р. Концевича (Kontsevich, L. R. “訓民正音”. 연구 논문, 번역, 주해, 부록, 색인, 해례본 영인판). 1979. 모스크바.